

오늘의 기사관

2006 전남실버취업박람회 오전 10시 여수 진남체육관

행사 (4일)
▲'멘토와 멘티' 만남 행사= 오후 5시 무진중 체육관. 서부교 육청 주관으로 392명 참여.
▲2006 전남실버취업박람회=오전 10시 여수 진남체육관.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 및 수출확대 방안 교육=오전 10시 나주시민회관.
▲담양 웰빙 리조트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오전 10시 군수실.
▲담양군 용연 용연2리 용평마을주민 단합대회=낮 12시 용연용평회관.
▲미항 목포 가꾸기 날 행사=오후 2시 목포시 일대.
(5일)
▲남구보건소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오후 2시

사랑의 컴퓨터.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실시.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오후 2시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석현교.
▲뮤지컬 드라마 '해상왕 장보고'=오후 4시, 7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신 장보고의 일대기를 뮤지컬 드라마로 제작. 061-749-3516
▲C.N 피아노 정기연주회=오후 7시30분, 6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에세대학 콘서트홀. 박남현·류은성·김유정·이근영·주연화씨 출연. 6일 송지영·박제희·박수영·하성욱·차민아·한정숙·강유라씨 출연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 제15회 정기 연주회=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박채욱·김관식·고상은·김춘수·임영빈씨 등 출연. '음악은 항상 내곁에' '진도아리랑' 오페라 아리아

모음 공연
▲화요예술무대 '항우'=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류무용단(류영수·장지혜·임원석·곽태경·유주희·심성희·신지은) 출연. 한량춤, 입춤, 살풀이춤, 진쇠춤 등 선사.
▲금용웅 대금 독주회=5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금용웅·박시양·김덕숙·박선옥·이현숙·박지용·김대선·고창길 등 출연. 대금정악·원장현무대금산조·창작곡 '아름다운 추억' 등 공연.
▲남도의 빛 전=동구 금남로 창 갤러리. 광주·전남 출신 중진 작가 60명이 참가한다. 서양화가 강연규씨를 비롯 김종일·노의웅·오건탁·우재길·최영훈·황영성, 한국화가 김형수·박은용·박행보·양계남·윤애근·오점규·조방원씨 등이 참여

한다.
▲년설 황정숙 서전=다음달 5일까지 금남로 4가 지하철의 메트로 갤러리. 예서와 행초서는 물론 전서, 초서, 해서, 한글 등 서체 전 부문에 걸친 65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성취씨 '우먼스토리'=4월 10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 '시집 가는 날', '새벽-달자다', '집지' 등 최근작을 전시한다.
▲김혜령 압화 기획전=10일까지 북구 동림동 우체국. 동구 조선대 우체국갤러리. 생생한 자연의 기운을 전달하는 액자, 다기, 가구, 약세사리 등 다양한 공예품과 어울린 압화를 선보인다.

역사속의 오늘

▲포은 정몽주, 개성 선죽교에서 이방원 부하에게 피살됨(1392)
▲시인 이육사 태어남(1904)
▲시인 김현승 태어남(1913)
▲한국-네덜란드 국교 수립(1961)



News Quiz (뉴스 퀴즈)

6.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호남 민심은 다가오는 2007 대선과 이를 둘러싼 정계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일은 언제일까요?

- 1 5월 31일 2 7월 31일
3 9월 31일 4 11월 31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 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광주무등파크호텔 1일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 만우절날 생긴일?



▲ 비밀번호를 누르는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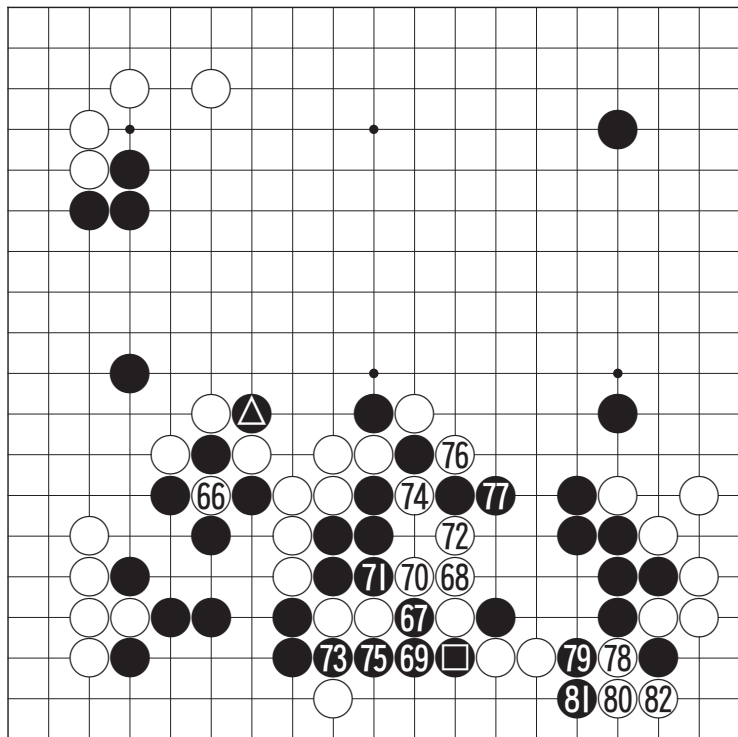
▲ 강아지 외출준비 끝!

<네이버 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3월 7일 癸亥)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뛰어난 임기응변 본선 19국 제 5보(66~82)
白 조한승 (8단) <타이젠>
黑 이상훈 (8단) <엠게임>
<참고도>
다. 하지만 이 패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에게도 부담이다.
이상훈 8단은 패를 이용하여 흑 67부터 71까지 끊어 수를 내리 했다. 이때 조한승 8단은 72라는 기막힌 대비책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흑이 73 대신 참고도의 1로 이어 반발하면 백은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이세돌 9단, 물가정보배 첫승

이세돌 9단과 최원용 4단이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본선 리그에서 박정상 5단과 한종진 6단을 각각 물리치고 리그 첫승을 신고했다.
이 9단이 편성된 D조에는 최철한 9단과 조훈현 9단이 포진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물가정보배는 A조에서 D조까지 4개조 4명의 기사가 풀리므로 경합을 벌여 각 조 1, 2위가 최종 결선에 진출, 8강 토너먼트전을 거쳐 결승 3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가린다.
각자 제한시간 10분,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200만원, 준우승 상금은 7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20>

Make yourself comfortable

편한대로 하세요.

A: Professor Choi,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my major.
B: OK, John. Have a seat and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just finish up this memo to my secretary.
A: Thank you, Prof.

A: 최교수님, 저는 교수님과 저의 전공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어요.
B: 좋아, John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비서한테 줄 메모를 끝낼게요.
A: 감사합니다. 교수님.

talk with you about my major=discuss my major with you
make yourself comfortable (주로서무실에서 "편하게 하세요")
(그러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make yourself at home로 말해야 함.)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20>

また歌手がストーカーにやられてるわ
또 가수가 스토커한테 당했어

A: ほう、見て、また歌手(かしゅ)がストーカーにやられてるわ。
B: 嫌(いや)だわ。物口(ぶっこう)な世(よ)の中(なか)ね。
A: あたしのようなチャタリングで、おとしやかな女性はどうしたらいいの?
B: あんたは、大丈夫(だいじょうぶ)よ。顔(かお)が武器(ぶき)だもん。

A: 이봐, 또 가수가 스토커한테 당했어.
B: 싫다! 뒤숭숭한 세상이야.
A: 나 같은 매력적이고 양전한 여성은 어떡하지?
B: 년 괜찮아. 얼굴이 무기인 걸.

歌手(かしゅ): 가수
やられる: 당하다(やる의 수동)
嫌(いや)だ: 싫다
物口(ぶっこう):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
世(よ)の中(なか): 매력적
チャタリング: 정속함, 양전함
しとやか: 정속함, 양전함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 w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367>

熟悉

충분히 알다, 숙지하다

A: 孙先生, 您对入境的习俗那么熟悉啊。
B: 因为我经常跟外国人在一起工作。
A: 啊, 孙先生, 你经常跟外国人在一起工作?
B: 是啊, 我经常跟外国人在一起工作。

熟悉(xīshí)
经常(jīngcháng)
孙先生(sūn xiānsheng)
经常(jīngcháng)
熟悉(xīshí)

<리틀치이나 중국어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937>

親迎(친영)

친할 친, 맞이할 영

친영(親迎)이란 중국식 전통혼례의 육례(六禮) 중 하나로, 신랑이 친히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올린 뒤 신부를 신랑 집으로 맞이하여 오는 의식이다. 즉 혼례식을 신랑 쪽에서 행하게 된다.

친(親)은 견(見)+신(辛+木)으로, 갈로 몸에 상처를 낼 만큼 가까이 접근하여 보는 것, 나아가 '친하다'로 사용되었다. 영(迎)은 작(辵: 나아가다)+양(阝: 마중보다)으로, 오는 사람을 반대로 맞이하여 나가는 것이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에 보이는 유교적 예학은 거의 우리 조선조에 수용되어 예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혼례 중 친영의 예절은 예외였다. 친영은 남가(男家) 위주의 풍습인 반면에, 모계사회의 유습이 강하였던 우리나라의 결혼풍습은 고대 이래로 여가(女家) 위주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런데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슬그머니 우리나라 혼례문화가 남가위주로 바뀌어 결혼식 장소는 남가 쪽에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친영식의 혼례문화라고 할 것이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